

## 2010년 가을 학기

###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6  
복음서에서  
(6)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 1:1, 3-5, 14, 16-18, 29, 32, 42, 51

#### I. 요한복음 1 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며 이 서문의 주요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비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설명이고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1 절.

- A.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하시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시다.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출 3:14-15, 요 8:24, 28, 58, 히 7:3.
- B. 요한복음 1 장은 영원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 있는 우주의 역사의 다섯 가지 위대한 사건들—창조, 육체 되심, 구속, 기름 바름, 건축—과 함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참조 시 90:1-2.
  - 1. 요한복음 1 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으로서 영원 과거에 말씀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역사의 요약이다—4-5 절.
  - 2. 요한복음 1 장은 영원하신 말씀께서 그분의 창조의 일에서와 그분께서 시간의 다리를 거치시는 여행을 하신 것을 결정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그분의 범리적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육체가 되시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고 생명을 주시며 변화시키는 영이 되시어, 궁극적으로 그분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된 신부와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벨렐,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가 되기 위함이다.
- C. 이 다섯 가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1. 창조에 있어서 창조주, 2. 육체 되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 3. 구속 안에서 어린 양, 4. 변화 안에서 기름 바르시는 영, 5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땅을 하늘과 연결하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한다—참조 1 절, 10:35, 엡 6:17, 요 6:63.

#### II.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1:3.

- A.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솟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시 19:1-3.
- B.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롬 1:20.
- C. 사도행전 14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와 17 장 24 절부터 29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창조가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같은 목적을 보여준다—참조 히 11:3, 1:2, 골 1:15-17, 학 2:7.

**III.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요 1:14.**

- A. 말씀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인도해 왔을 뿐 아니라 은혜와 실재가 충만한, 땅 위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다.
  - 1.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17 절.
  - 2.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6 절.
- B. 그분은 그분의 육체 되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에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 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 C. 그분은 하나님-사람이 되시어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인도하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신다.
- D.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체되심은 또한 하나님을 사람에게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 안에서 선포(설명)하기 위한 것이다—18 절.
  - 1. 말씀은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한다.
  - 2. 생명은 나누어 준 바 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 들일 수 있게 한다.
  - 3. 빛은 비추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비춤받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4. 은혜는 사람이 누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나눌 수 있게 한다.
  - 5. 실재는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한다.

**IV.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29, 36 절.**

- A. 그분께서 잃어버린 세상의 구속을 위해 어린양이 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따른 절차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B.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성취인 육체 안에 있는 말씀을 상징한다—히 10:5-10.
  - 1. 그리스도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요제, 거제, 전제의 실재이시다.
  - 2.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갖고, 이 구속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V.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을 위해 하나님의 집(벧엘—51 절)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을 돌들(요 1:32-42 절)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름 바르시는 영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A.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바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영(고전 15:45) 이 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그분의 경륜을 유기적으로 수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더 나아가 말씀하신다.
- B.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 안에서 기름 바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요일 2:20, 27.
  - 1.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 되었고 기름 바름이 된 분이시다.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은 적 기름바름(적은 ‘대항하여’ 와 ‘무엇을 대치 하여’ 또는 ‘대신하여’를 의미함)이 되는 것이다— 18 절, 22 절, 4:3, 요이 7.
  - 2.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에 속한 어떤 것으로 대치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대치하게 허락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참조 빌 1:21, 4:4-9.
  4. 우리는 문화, 종교, 윤리, 타고난 관념이 내적인 기름 바름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도록 허락하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매일의 생활을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을 바르시는 것과 움직이시고 일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적시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삼일 하나님의 기름 바름 안에서, 기름 바름과 함께, 기름 바름을 통해, 기름 바름에 의해 살고 행하기를 원합니다”하고 기도해야 한다.
- C. 기름 바르시는 영이신 비둘기는 창조된 사람을 거둬나게 하고 타고난 사람을 기름 바르고 변화시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고 변화된 사람을 연결한다.
- D. 베드로가 회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 곧 돌(요 1:42)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반석, 곧 돌(마 16:16-18)이라는 것을 계시 하셨다. 이 두가지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 둘 다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벧전 2:4-8).

**VI.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늘(하나님)을 땅(사람)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땅(사람)을 하늘(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요 1:51, 창 28:11-22.**

- A. 그리스도께서는 베엘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고 변화된 선민으로 구성된 집을 땅 위에 가지시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여 돌을 영원토록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어떻게 갈망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
- B.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였다.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엘에서 본 사다리의 실재이시기 때문이다—창 28:12, 요 1:51.
1.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엡 2:22)인 우리의 거둬난 영이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신(딤후 4:22) 땅위에 있는 기반이다.
  2.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인 베엘이 하늘의 문이고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사다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3.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건축물—베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사다리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 C.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는 이들이 견고히 건축될 필요가 있다. 이 건축물은 그분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받을 내딛기 위한 디딤돌 즉 교두보이시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것이다. 신성이 인성과, 인성이 신성과 영원히 연합 될 것이다. 이 건축물은 야곱의 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 일 것이다. 시간의 다리는 끝나고 축복된 미래의 영원으로 안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건축물을 위해야 하고 이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요한 복음 라이프 스타디 88 쪽).